

감동과 웃음의 어색한 경계

MBC <손현주의 간이역>

김미진

<손현주의 간이역>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MBC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상징인 간이역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배우 손현주 씨, 개그맨 김준현 씨, 배우 임지현 씨가 역장과 역무원 체험을 하며 간이역과 그 주변 볼거리를 소개한다. 첫화의 중앙선 화본역을 시작으로 총 10곳의 간이역을 방문했으며, 한 곳당 2회분으로 제작하여 총 20회가 방영되었다. 2회분 중 첫 편에서는 해당 간이역을 소개하고 MC들이 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번째 편에서는 게스트가 출연해 함께 역 주변 관광지를 탐방하기도 하거나 마을 주민의 일손을 돕는다.

<손현주의 간이역>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대로 감성적 아이টে이션을 다룬 힐링 예능을 표방한다. 간이역을 보존하자는 제작 의도는 잊혀가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며, 디지털이 일

상이 된 지금, 아날로그적인 감동을 잔잔히 선사한다. 전국의 고즈넉한 풍경과 지역의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에 지친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침체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유명 관광지가 아닌 잊혀가는 간이역을 소개하며 관광지의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면에서 시의적절한 콘셉트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시청자의 기대와 프로그램 간의 메워지지 않는 거리

〈손헌주의 간이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능에 자주 노출되지 않은 베테랑 배우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라져 가는 옛 정서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아이템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최불암의 〈한국의 맛〉과 닮아 있다. 또한 외지의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출연진이 노동을 하고 그 지역과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삼시세끼〉, 〈윤식당〉, 〈윤스테이〉 등의 tvN 예능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게스트들이 나오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삼시세끼〉가, 세대와 성별을 아우른 구성원이 함께한다는 면에서는 〈윤식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영상 콘텐츠 속에서 유사한 설정이 발견된다는 것만으로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유사한 설정이 시청자에게 친숙함을 주어 시청 몰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만 시청률을 위해 기존에 성공한

적 있는 프로그램 문법을 고민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곤란하다. 익숙한 구성 안에서라도 시청자가 소구하는, 해당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손현주의 간이역>이 선택한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은, 힐링 예능을 표방하면서도 예능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다. <손현주의 간이역>은 다른 유사 힐링 예능에 비해 컷 전환이 빠르고, 화면을 꽉 채운 자막을 통해 장면 장면에 대한 설명을 넣어 시청자의 개입을 줄인다. 예능 프로그램에 익숙한 경쾌한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을 사용하며, 손현주가 게스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등 기존 야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 문법을 따른다.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예능적 서술 방식이, 메인 진행자 '손현주'와 감성적 아이템인 '간이역'에 대한 시청자 기대감 사이의 간극을 매끄럽게 메우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능적 구성에 집중했다면 시청자의 감성적 기대를 전복시킬 정도의 재미가 있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전반에서 재미를 선사할 특별한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 편안한 웃음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썼듯, <손현주의 간이역>은 한 간이역당 2회로 나눠 방송이 송출되는데, 전편은 해당 간이역을 소개하고 후편은 새로운 게스트들이 그 지역을 체험한다. 매 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셈이다. 전문 예능인만으로 완벽하게 짜인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야외의 낯선 상황을 바탕으로 매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는 구성에서는 재미를 이끌어낼 요소를 찾기 어렵다. 새로운 공간을 짧은 시간 머무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삼시세끼>나 <윤식당> 등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 속에서도 편안한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 긴 호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정 공간에서 스토리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충

분한 관찰과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견된 스토리들은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조성되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들도 재미를 주는 요소로 작동한다. 흥런 같은 큰 웃음 한 방이 아니라 소소한 감동과 웃음을 통한 단타로 타점을 내야 하는 〈손현주의 간이역〉 또한 긴 호흡으로 특정 공간만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지역 주민과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어야 한다. 과감하게 한두 개의 간이역에 집중하여 1~2주 이상 장시간 머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면 스토리 발굴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과의 케미도 더욱 잘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배우 손현주의 아쉬운 활용

안정적인 발성과 연기력, 대사 전달력이 보장된 배우들의 내레이션은 감성에 호소하고 몰입하게 하므로 다큐멘터리에 어울린다. 〈한국의 맛〉의 최불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의 김영철, 〈건축탐구 집〉의 김영옥의 맛깔스러운 내레이션은 프로그램의 맛을 배가하는 요소다. 연기와 배우 손현주의 목소리 또한 감성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중저음이라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손현주의 간이역〉의 예능 신인 손현주는 웬지 어색하고, 그의 어조도 다소 들떠 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이 프로그램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을 건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매회 새로운 상황에서 재미를 만들어내고, 게스트들을 이끌어 진행하는 것은 쇼 프로그램 경험이 많지 않은 그에게는 꽤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개그맨 김준현은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존의 이

미지대로 요리를 하거나 먹방을 선보이는 데 치중한다. 임지현 또한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이끄는 출연자라기보다는 그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베테랑 진행자가 필요한 예능 신인일 뿐이다. 손현주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MC 역할을 맡기기도 편집 혹은 구성 장치 등을 통해 그의 매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윤식당>의 윤여정과 신구가 호평을 받은 이유도 진행자로서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이 펼쳐진 곳에서 삶의 노하우와 지혜를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손현주 또한 진행자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큰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손현주의 캐릭터 또한 아쉬운 부분이었다. 역장 업무를 수행하며 저녁 반주를 위해 당직을 피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 등은 요즘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꼰대 이미지가 엿보인다. 솔선수범하며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일하는 윤여정과 신구의 캐릭터가 <윤식당>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손현주의 간이역>을 이끄는 중심축 손현주의 매력적인 캐릭터 구축은 프로그램 성공의 큰 열쇠이다. '꼰대 아재'의 이미지를 비틀어 예능적 재미를 이끌어내고 호감으로 전환해 내기 위해, 해당 캐릭터를 재미있게 유화할 수 있도록 장도연, 장동민과 같은 강한 캐릭터의 인물이 함께했다면 손현주의 이미지가 더욱 매력적으로 살았을 듯하다.

간이역을 보존하자? 공감이 필요한 제작 의도

〈손현주의 간이역〉의 제작 의도는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상징인 간이역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간이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보존하자는 제작진의 호소가 시청자에게 얼마만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불암의 〈한국의 맛〉이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대상은 ‘음식’, ‘동네’이다. ‘음식’과 ‘동네’는 모두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요소이고,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가 분명한데, 프로그램을 보면 묘한 동질감과 공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손현주의 간이역〉은 간이역에 얽힌 기억이 보편적이지 않다. ‘간이역’의 이미지도 또한 의지에 있는 한적하고 아련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단선화된다.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간이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보존하자는 제작 의도가 시청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보니, 프로그램이 ‘간이역’보다는 주변 동네 체험 등으로 무리하게 확장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취지, 의도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진행은 시청자의 몰입도를 낮춘다.

단순히 ‘간이역’을 보존하고 지키자는 것보다, ‘간이역’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접근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 간이역이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편하고, 긴 호흡으로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간이역에 대한 기억을 시청자 개인의 기억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당 간이역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 에피소드로 구성했어도 흥미로웠을 듯하다.

〈손현주의 간이역〉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수많은 자극적인 프로그램 속에 쉽표를 찍어줄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시청자들

이 예능 프로그램 속 감동적인 요소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인 장치로 휘발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잔잔하게 힐링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 수많은 자극적인 프로그램 속에서도 품격 있는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에 위안을 안겨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공영방송사에 거는 시청자들의 기대이다.